

제429회 국회  
(정기회)

#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9일(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 1
-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1

(09시41분 개의)

○위원장 이인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인선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원민경)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9월 3일에 원민경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의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등 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3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종합 의견에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아 위원님들 자리에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발언하십시오.

조은희 간사님 하세요.

○조은희 위원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민의힘은 후보자 채택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 때문입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원민경 후보자의 리더십과 자질을 검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했습니다.

첫째,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용어 및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의제에 대해 일방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마저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의제들임에도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갈등을 우려하는 국민정서와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둘째, 여성폭력 피해자를 다년간 지원하고 변호해 온 사람으로서 분명한 소신이 부족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에 얹힌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에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인권위원으로서 내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당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의 기각 결정과 인권위 등급 강등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즉각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보다 당시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여성가족 위원들은 원민경 후보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역차별을 해소하며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뚜심 있게 추진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선** 이연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연희 위원**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할 때 후보자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나 변호사 경력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가 임명됐다 이렇게들 다들 호평을 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왔지만 도덕성과 관련한 시비는 전혀 없었고, 그런 후보자였고.

대신 차별금지법이나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제3의 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거는 최종적으로 후보자의 입장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논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 비동의강간죄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특히나 여성가족부장관이 1년 8개월째 공석인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여성가족부가 정상화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장관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한 그런 상황에서 야당에서 이걸 정쟁화해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양쪽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지요?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긴 시간을 했습니다만 아마 양당에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쪽에서 의견을 주신 걸로 하고요.

더 이상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조은희 위원 저는 표결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결하십시오.

○위원장 이인선 지금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묻는 과정 중에서 간사님 의견도 들었고 그날 이연희 위원님이 많은 정리를 해 주셔서 이연희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되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줘야 될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 유인물을 다 보고 계셨지요? 그래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한규 위원 위원장님도 의의 없으신 거지요?

(웃음소리)

○위원장 이인선 우리 여성가족위원회는 충분히 민주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 의견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날 아마 후보자가 간결하게 확실하게 마지막 답변 했다기보다는 이연희 위원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유도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다고 지금 본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산회)

---

### ○출석 위원(13인)

김남희 김한규 서명옥 서영교 이연희 이인선 이주희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정춘생 조은희 채현일

### ○청가 위원(1인)

박홍배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태규